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해설

李 謙 魯

《차 례》

- | | |
|---------------|-------------------|
| 1. 序 言 | 3. 編刊中心人物과 各지의 協助 |
| 2. 重刊의 發議와 經過 | 4. 部署와 任役員名單 |

1. 序 言

이 重刊日記는 필자가 1975년 12월 말경, 두어 묶음의 古書 朥치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表紙도 없이 筆寫의 총 29장의 책장이 푼푼 말려져 있었다. 책 크기는 세로가 32cm, 가로가 21.5cm이며, 文面의 크기는 세로가 약 28cm, 가로가 약 18cm이었다. 每面은 10行, 每行은 25字 내지 28字이었는데 첫째 장에서 여섯째 장은 아랫 부분이 破損되어 그 부분의 글자가 없어졌다. 구겨진 冊張을 펴고, 表紙를 입히고, 顏題를 써서 놓으니 온전한 책의 面貌가 갖추어졌다. 俗談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대로, 널리 내용을 알리고 싶어서, 이에 原文을 影印 添附함과 동시에 그 重刊 경위를 기록한다.

이 退溪文集의 重刊日記는 憲宗9年 癸卯(1843) 閏7월에 全帙 32책을 간행할 때의 것이다. 원래, 退溪文集의 初刊은 宣祖 33年 庚子(1600)에 陶山書院에서 간행되었다. 이 初刊本은 51권의 巨帙에 冊數는 일정치 않으나 대개 31책으로 되어 있다. 卷首의 目錄이 上과 下 2권이요, 第1권에서 5권까지는 詩, 第6권은 教·疏, 第7권은 筭·經筵講義·啓議 등이요, 第8권은 辭狀·啓辭·書契問答, 第9권에서 第40권까지는 書, 第41권은 雜著, 第42권은 序·記, 第43권은 跋, 第44권은 箴·銘·表·箋·上樞文, 第45권은 祝文·祭文, 第46권은 墓碣·墓誌銘, 第48권·第49권은 行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根幹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補遺가 이루어졌는데 初刊과 補遺와의 구분을 위해, 初板本의 文集은 內集이라 하였고, 그 다음의 것은 別集·外集·續集 등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이들 文集의 구분, 序文·跋文은 있으나 완전한 重刊記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여기에 수록되는 새로 발견된 重刊日記만이 後世에 전해지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重刊 때의 人的 구성, 기구, 財源, 參加範圍 등을 1843년의 重刊 경우를 推定하여 餘他的 重刊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重刊日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重刊의 發議와 經過

日記는 앞에 「上之九年癸卯三月初四日丁未」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해는 1843년(哲宗 9)이다. 이 다음부터는 發議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① 發 議

退陶老先生文集 重刊의 役事를 安東 鳳停寺에서 시작하였다.

대개, 退溪文集은 당시에 門人과 諸賢이 萬曆 己亥年(1599, 宣祖 32)에 처음 印刊되었다. 삼가 文集의 편찬을 마친 뒤의 告成文(문집을 마친 뒤에 사당이나 先賢에게 告由하는 글 : 筆者 註)을 살펴보니, 쓰여 있기를,

“……(약 6字 脫落) 세상에 전해진다면 人心과 世道가 끝내 어찌 될지 아지 못하겠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거의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役事를 일으켜 새벽……”

……(이상 약 6字 脫落)의 뜻과 높이 우렁어 받드는 정성이, 내려다 봄과 우렁어 봄이 어제와 같은데 그후 2백여년의 사이에 圖를 고치고 비단을 새겨……(약 6字 脫落).

지금에 이르러 遺響이 점점 멀어지고 옛 板本이 또 닳아서 後學에게 전해줄 責任이 참으로 文集을 重刊하는 한가지 일에 있으니……(약 5字 脫落) 世襲의 집안과 선생을 追念 敬慕하는 선비치고 누가 감히 一體로 힘을 다하여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

이에 役事를 시작한 顛末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상은 重刊 趣旨의 大綱을 적은 것이다.

丙申年(1836, 憲宗 2) 10월에 李參判 泰淳이, 本鄉(安東을 말함 : 筆者 註)의 士林과 함께 처음 文集 重刊할 論議를 하였다. 그러자 虎溪(柳成龍을 받드는 書院 : 筆者 註)와 屏山(金誠一을 받드는 書院 : 筆者 註) 두 書院에서 通文이 연이어 나왔다.

대개 陶山 刊別所에서 刊行의 일을 베풀고, 또 公(위의 李泰淳을 말함 : 筆者 註)이 주관하여 여러 해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 物力을 排布하고 더우거나 착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때에야 이 論議가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은 論議가 일어난 배경을 기록한 것이다.

丁酉年(1837, 憲宗 3) 正月에 朝家에서 陳賀할 때이다. 京鄉의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慈山 府使 李彥淳의 舍館에 모두 모여서 重刊의 일을 구체적으로 의론하고 都都監에 豐安君 柳相祚를 추천하여 정하고 그 나머지는 차례로 갈라 맡겼다. 그리고 서로 戒勅하기를,

“이것은 斯文의 큰 일이니 모름지기 각자 서둘러 하자”

하고, 마침내 通文을 嶺南의 네 鎭管에 들렸다.

○ 이해에……(약 4字 脫落) 前參判 柳台佐를 陶山洞主로 삼았다. 刊行의 일에 再任된 것이다. 享禮와 行公으로 인하여 考閱……(약 5字 脫落) 못하고, 宣城(禮安 : 筆者 註)의

士林들은 確實한 상의를 하고서 돌아갔다. 비로소 각 邑에 金錢을 分排할 의논을 냈다.

○ 9월. 本府 鄉校에서 道會하였다.……(약 6字 脫落). 前參奉 李彙陽, 幼學 李崇延 이하 會員 백여인이 菁莪樓에서 開座하고 排錢……(약 5字 脫落). 公事員 安東進士 李五秀, 榮川幼學 朴宗屋가 드디어 列邑에 通文을 냈다.

○ 10월……(약 4字 脫落)寺에서 安東 前郡守 柳喆祚, 禮安 前應教 李家淳, 前參奉 李彙陽, 前參……(약 4字 脫落), 榮川 前正言 金騏獻 이하 회원 백여인과 公事員 安東 生員 柳道宗, 幼學……(약 4字 脫落), 排錢에 기일이 지체되는 件으로 다시 鎭下의 邑에 通文을 내고 드디어 任員을 갈라 정하였다.

○ 都刻手 2명을 差出하였다.……(약 4字 脫落)

이상은 發議에서 任員을 정하고 排錢한 사실과 그 通文 관계를 적은 기록이다. 이하는 助錢과 排錢 및 出板의 경과를 年月別로 기술하고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경 과

처음 돈이 온 것은 丁酉年, 月과 額數 未詳의 □光·靑城에서이다. 그리고 同年 11월에 退溪의 후손인 開城留守 李彥淳에게서 額數 未詳의 돈이 왔다. 또 赤城(丹陽:筆者註)에서 板을 내기로 하고 都監으로 朴箕寧 이하 幹事를 정하였다. 同年 12월에는 河回門中에서 額數 未詳의 돈이 왔다. 이하 주요 사실을 抄錄하면 다음과 같다.

戊戌年(1838, 憲宗 4)

봄에 50여 회원이 道會를 열었다. 烹板有司를 金行源과 李彙璿으로 정하고 板을 검사하고 龍門寺와 天柱寺에 보관하였다.

己亥年(1839, 憲宗 5)

安東鄉校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돈이 왔다. 都都監 豐安君 柳相祚가 작고하여 柳喆祚로 대신케 하였다.

庚子年(1840, 憲宗 6)

3월에 鳳停寺에서 道會를 열고 都都監과 都廳의 부서를 정하고 李彙秀 등을 監寫有司로 정하다.

○ 九潭의 光山金氏門中 등에서 돈이 오다.

○ 4월. 舊板을 가져와 수를 헤아려서 鳳停寺에 藏置하다. 刊本을 謄寫하기 시작하였다.

○ 12월. 校正有司로 李漢膺 등을 뽑았다.

辛丑年(1841, 憲宗 7)

각지에서 門中錢과 助錢이 왔다. 李家淳과 金永獻 등이 亦樂齋에서 한달 동안 刊本을 校正하였다.

○ 11월. 觀察使 尹聲大의 助錢이 오다.

壬寅年(1842, 憲宗 8)

11월에 柳厦祚와 李彙寧 등이 明春에 刊役 시작할 것을 상의하였다. 刊錢 1,259兩이 들어 왔다. 12월에 李彦淳 등이 陶山書院에서 刊本을 考校하고 나머지는 각자 나누어 가지고 가서 校正키로 하였다. 鎭下 各 邑에서 排錢 700兩이 오다. 明春 3월 1일에 일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癸卯年(1843, 憲宗 9)

正月：慶州 玉山書院에서 道會.

2月：尙州 道南書院에서 道會. 李彙寧 등이 本院에서 刊本을 校正하고 寫本이 거칠어서 改寫하게 함.

3月：木手 2명이 오고 刀匠이 粧頭木을 만듦. 刻手들을 모으고 刊本과 舊本 6책이 陶山書院에서 왔다.

4月：初校를 印出하다. 排錢일의 通文을 尙州 등지에 보내다. 禮安都監 李彦淳 이하 각지의 담당 任員이 와서 새로 任員을 派定하여 晚翠堂에 上揭하였다. 18일에 校正有司 柳泰睦과 金鎭坤, 都廳의 鄭來任, 監役 金道振이 오다. 20일에 本府의 校正有司 李秉城 등이 오고 陶山書院에 所藏되었던 文集 草本 42책과 續集 刊本 4책, 그리고 河回養眞堂의 소장인 謙庵(柳雲龍의 호)의 手寫本 5책이 왔다.

5月日：2일에 本邑의 金驪洛과 直日 李瓚이 오고 校本을 印出하였다. 9일에 校正都監 鄭之洛, 校正有司 金在鼎 외에 都廳의 柳厦祚 申冕鑽, 李鍾海 등이 왔다. 18일에 刻手廳에 잔치를 베풀었고, 本孫인 李孝淳이 府使로 있는 寧海에서 돈과 海産物이 왔다. 25일에 禮安의 尹樂莘, 金載璿이 門助錢을 가지고 오고 校正有司 琴詩述도 왔다. 刻手 4인이 왔으며 校本을 印出하였다.

6月：4일에 再校本을 처음 印出하였다. 7일에 각처의 儒生들의 赴會를 모두 정지시켰다. 이 刊行의 役事는 실로 道內의 公論에서 출발하였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中途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青城道會에서도 부득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진실로 自身을 반성하고 督勵하는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27일에 校本을 印出하고 年譜의 寫本과 舊本이 왔다.

7月：初 1일에 李初淳과 李彙鑽 편에 年譜草本을 돌려 보내고 都都監 溪南公의 서찰과 刻手들에게 드는 別供錢도 보내 왔다. 6일에 校正有司 李師延이 三栢堂助錢을 가지고 왔다. 再校本을 印出하였고 寫本 付板을 끝냈다. 이 刊本은 辛丑年(1841)에 시작하여 付板이 끝나는 날까지 騰寫할 때에 誤字 脫字가 많이 생긴 때문에 舊本에 의하여 여러 차례 考準하였다. 그러나 舊本도 誤字가 있어서 여러 先輩가 手校한 陶山書院에 있는 草本에 의해 다시 考訂하였는데 바로 잡아야 할 글자가 많아서 校正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文集의 完成을 告하는 會席을 베풀었다.

16일에 校本을 印出하였다. 板이 2,500片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續集, 拾遺, 言行錄도 登梓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排錢이 부족하여 마침내 停止하였다. 남은 板을 發賣하여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22일에 初校를 마쳤다. 23일에 再校 印出을 시작하였다. 24일에 板刻을 印出했다. 26일에 刻手들이 일이 끝났으므로 終決을 고하고 돌아갔다. 再校를 마치고 正本을 印出하였다. 28일에 印出匠 2명이 왔다.

閏 7月 : 3일에 粧潢匠 4명이 왔다. 6일에 陶山書院所藏本인 草本 44책, 年譜 1책, 續集 刊本 4책을 돌려 보냈다. 8일에 題考 監事를 위해 李彙寧은 屏山으로 가고 李彙綱은 河回로 갔다. 23일에 粧潢을 마쳤다. 24일에 冊匠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 갔다. 25일에 刊行의 役事に 쓴 前後의 費用을 通計하면 便息條와 排入金이 都合 3,940兩 7錢 8分이다. 이 중에서 462兩 7錢 5分을 出板과 烹板에서부터 運板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으로 지불했고 3,220兩 3分을 刊役에서부터 印出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으로 지불했다. 나머지는 258兩이다.

○ 刊行에 필요한 돈이 적어서 印出한 것은 겨우 열한 帙이었는데 陶山書院・虎溪書院・屏山書院 및 溪上の 宗家に 각각 한 帙을 보내고, 都都監・都廳 및 幹事 두 사람에게 각각 한 帙씩을 가지게 했다.

○ 板을 판 값 150兩은 鳳停寺에 맡겨 利息을 늘려서 채 刊行치 못한 책을 다시 刊行할 때의 몫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258兩은 廬陽書院과 屏山書院에 나누어 보내 다시 다른 해에 이미 刊行된 서적을 印出할 때의 비용으로 쓰게 했다.

○ 都廳 柳厦祚, 鄭來任, 李彙綱과 直日 李晚淑이 돌아가서 드디어 罷會되었다.

이상까지 그 경과를 알리는 日記가 끝나고 있다. 비록 日記는 1836년(憲宗 2)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세부 기록은 1843년(憲宗 9)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 부분의 「上之九年…丁未始」의 기록으로 보아 1843년 이전의 기록은 모두 뒤에 追記한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지의 排錢 門中錢 등의 額數 이외에는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3. 編刊 中心人物과 각지의 協助

이 日記 끝에는 전체의 전말을 알려주는 朴箕寧의 識가 첨부되어 있다. 朴箕寧은 刊事 主役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識는 앞에 「右日記觀止矣」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師門의 載道の 글이 이에 세번 刊行되어 이루어졌다. 오늘의 粗效・藉手는 거의 이 한가지 일에 일었다. 그러나 斯文들이 重刊의 논의를 내어 丁酉年에서부터 癸卯年에 이르기까지 6년이 걸려 비로소 編成하였다. 그간 논의를 주관한 諸公들 중에 作故한 분들도 더러

있고 士林들 사이에서 同聲 協力하였지만 처음 시작할 때와 같지 않아서 거의가 中途에 폐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夫子의 冢孫 李彙寧이 慨然히 都廳의 柳厦祚 鄭來任 李彙綱과 한결 같이 처음의 約束대로 빨리 큰 힘을 내었고, 이어 退溪의 門人이 되는 淵源의 집안 搢紳들이 도와 주고 온 힘을 다 쏟아서 편안하게 告成케 되었다. 대개 3월 初 1일부터 閏7월 까지 여섯달 동안 32권의 책을 모두 새기고 인쇄하였다. 일을 하기는 저와 같이 어려웠는데 끝나치고 손을 털기는 이와 같이 쉽던가? 이것은 安東 禮安의 여러 君子들의 힘이 받드는 정성이 없었던들 어찌 이와 같이 이룰 수 있었겠는가? 또 主管하는 同志들의 하나 하나의 규모와 節度가 아니었던들 어찌 비용은 적은데 공은 배가 이루어졌겠는가?

다만 한스런 것은 篇秩은 많은데 物力이 모자라서 言行錄과 續集 이외에는 刊行치 못한 것이 많고 刊行한 책도 많이 찍지를 못해 널리 세상에 排布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圓滿히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그 쓰고 남은 板을 판 값 150緡(퀘미에펜 돈을 세는 단위)을 다른 날 刊行을 마치는 資本을 만들게 하고 또 이것 저것 남은 돈 258緡은 有司에게 맡겨서 장차 힘써 印刊·排布할 資本으로 삼게 하였다.

진실로 뜻이 있으면 일이 끝내 이루어질 것이다. 뒷날 이 日記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열면 그 사정을 환하게 알 것이다.

이 識의 뒤에는 題目이 없는 글이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앞부분이 없는 通文이며 그리고 「豐基校院私通」이란 題目의 通文이 있으나 앞부분 2行만이 있다. 이로보아 本日記는 모두 있으나 첨부된 일부의 기록이 遺失된 듯하다.

이상의 「日記」와 識를 종합하면 처음 發議는 退溪의 후손인 李泰淳과 李彥淳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退溪의 門人인 西厓柳成龍과 鶴峯金誠一을 모시는 虎溪와 屏山 두 書院이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하여 협조하고 나서서, 虎溪書院 측의 柳相祚가 都都監이 되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柳台佐가 陶山洞主로 선출되어 각지에 通文을 내어 排錢하였다.

이에 書院을 중심으로 하여 경비가 엄출되었는데, 退溪의 후손은 물론, 각 門中에서 排錢과 助錢을 내고, 嶺南監營을 비롯하여 각 고을에서도 助錢과 刻手 동원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본부는 鳳停寺에 두고 主管하면서 陶山刊別所, 屏山刊所 등에서 印刊을 담당하였으며 排錢 및 助錢을 거두어 들이는 소임은 收錢都都廳을 두고 그 아래 각지에 收錢都廳을 두어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예상했던 경비가 제대로 지치지 않아 言行錄과 續集만을 간행하고 나머지의 글은 뒤로 미루었으며, 印刊한 帙數도 우선 최소로 필요한 11帙만을 배포한 것이다.

그 동안, 직접 간접으로 동원된 延人員이 2,000명에 가깝고 刻手가 66명, 校正有司가 88명, 監印이 86명, 監刻이 88명, 監役이 52명, 校正都監 18명, 監寫 34명 등이었다. 資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嶺南一帶의 모든 곳에서 협조를 하여 書院과 門中, 그리고 鄉校·書堂과 개인들이 多少를 不問하고 出錢하였다.

4. 部署와 任役員名單

日記에서 나타난 그 주요 部署는 다음과 같다.

- (1) 陶山刊所：陶山洞主·曹司·公事員
- (2) 都都廳：都都監·都監·製通·寫通·直日 등
- (3) 收錢都都廳：都都監·都監·有司
- (4) 校正廳：都監·校正有司·會校·考校·初校·再校
- (5) 監寫所：監寫有司·臈寫·寫本付板
- (6) 刻手廳：監刻·都刻手·校正刻手·刻手
- (7) 監印所：監印·印出匠·刻板印出·初校印出·再校印出
- (8) 烹板所：烹板有司·運板·烹板·出板·登刊·臺床板
- (9) 木手·鉅刀匠·出板匠·粧頭木匠

이중에는 役員의 部署名이면서도 더러는 담당 일에 따라 部署名으로 쓰여진 것도 있다.

다음 癸卯年 4月 5일에 정해진 任役員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都都監：前叅判李彥淳.

都監前叅判朴光錫 李羲發 前承旨申冕周 前五衛將李程淳 李彙陽 前叅奉金在振 幼學李崇延 前承旨趙億(이상 9명)

校正都監：前叅奉鄭象晉 前承旨柳致明 前應教李家淳 前五衛將姜必孝 生員李大淳 幼學李楨輔 鄭之洛 鄭象履 李漢膺 金養休 柳聲祚 金鎮龜 前縣監權載大 叅奉柳進翼 前掌樂正李彙寧 幼學鄭大永 前承旨李淵祥 前判官金鎮華(이상 18名)

校正有司：前正言李在嵩 幼學金璟燦 進士李老淳 前校理鄭蓋 幼學柳泰睦 進士李孚豹 幼學李相星 李秉成 柳碩祚 縣監金相稷 幼學李衡相 前正言宋奎弼 進士朴箕寧 前應教姜必魯 幼學李進淳 李顯儒 金是珩 李秉夏 生員金憲運 李廷佑 幼學琴詩述 李師延 金倫教 鄭光植 進士金宗休 幼學李亨秀 府使李建基 李孝淳 前正言李彙圭 主簿張錫愚 生員姜哲欽 金相鏞 金星觀 前正言李秉瑩 金重夏 權載綸 金重佑 李晚受 鄭昌熙 權載鈺 金在鼎 安潤著 張龍八 李五秀 崔孝述 金永恪 金重協 金鎮坤 李以漸 金重德 李秀賢 李書秀 李志發 金重呂 李書祥 李殷淳 李旭馨 李得烈 朴宗範 許恁 金樂淵 金鎮河 姜遠欽 李文裕 李彙炳 李天永 權世永 鄭象樞 李彙載 柳書春 朴翼相 柳箕鎮 朴在璣 牧使李源祚 李博祥 尹宗燮 金騏獻 李鍾祥 黃壽默 縣監金用邦 金性維 鄭德善 李存永 別檢李命允 金鑿直 朴慶時 呂大驪 河大範(以上 88名)

都廳：幼學柳夏祚 金騏壽 鄭來任 李彙綱

運板：幼學金道壽 朴俊寧 金行源 金龍在 柳淵祚 韓明教 李挺邁。

出板：朴聃寧 鄭之觀 南始發 徐元模 金光壽 金範洛 李珍儒 李泰行。

監寫：趙熙龍 金永毓 柳信祚 金百行 金性舜 縣監柳道宗 李漢明 李相任 琴楨漢 禹鍾衡 柳致直 呂文聖 洪燾 權昇彥 黃憲周 李彙廷 李殷雨 鄭天達 柳進矩 前承旨 李益文 申冕鑽 金秉周 鄭來儉 孫英教 蔡周虎 許焯 權致和 沈宜鍊 前持平李潭九 前典籍金錫熙 柳進鳳 南基重 任秉直 鄭柱東(以上 34名)

監刻：金永獻 金星袞 鄭麟休 裴翰周 朴龍天 金瑛燦 李彙璿 權命夏 李希淳 洪宗標 趙秉周 李秀億 李肇淳 柳孝祚 崔世顯 進士柳進翰 金重學 金炳瓚 李相暉 李魯善 金養楨 金驥銖 金庭瑞 李一相 柳周祚 金東鎮 金性存 前正言徐玠輔 李晚奎 曹羽明 李彙蘭 安養基 洪熙遠 柳命喆 李天裕 金度均 金輝德 吳應運 趙俊 趙時成 李錫奎 柳進夏 李奎祐 金養澈 金英洛 柳致洛 柳致崎 權玉必 孫相煜 趙龍震 金健壽 柳璿祚 權麟休 柳致任 孫鍾恁 金鉞 金若洙 柳晚祚 鄭之憲 李章儒 柳政祚 徐宅烈 正字柳道海 李秉默 姜命欽 朴士淳 許根 韓用奎 鄭堧 姜鳳海 曹鳳文 郭敬崔虎文 許采 朴致煥 崔必鴻 李亨律 李秉欽 黃元善 蔡周麟 趙基嵩 申匡桓 李秉龜 柳民祚 李鎬 朴致陽 金磯昊 金哲 金佑商(以上 88名)

監役：權奎度 李彙玉 李運協 權璫 金厚根 金龍秉 宋鎮奎 金萬衡 權邦烈 權仁護 柳進鴻 李基永 李晉奎 趙彥綱 李迪裕 金鎮滿 金行洙 李彙鄰 全宗齋 李章韶 南夢陽 申晚鎮 張世奎 李亨萬 李鍾海 琴聖烈 金樂崇 朴周鏞 李在玉 南始奎 安明心·柳道璜 安行翼 朴象奎 朴祥壽 金行進 鄭瑯 李相聖 金載璿 姜性欽 李龍在 正字朴齊淵 南萬元 李奎鉉 金疇壽 鄭文虔 吳光一 琴樂源 申益欽 南公壽 安秉道 洪煥日(以上 52名)

監印：進士崔雲錫 李淵浩 朴宗壽 李邦淳 趙述周 李秉民 李彙冕 鄭崙載 具光瓚 金道振 張龍羲 進士南履陸 尹奎東 鄭利錫 李昌奎 柳道鳳 李宅永 李恩淳 安行直 李泰進 柳祈睦 李奎應 孫廷煥 李能元 丁勉教 金重壽 金鎮河 李亨晉 柳進經 黃文夏 權策 金在裕 李晚億 李秉道 李燮祥 崔濟定 韓有源 吳元淳 李賢坤 李在公 李晚高 姜漢奎 韓興羽 鄭禮休 河鍾亨 孫鍾泰 崔觀述 曹啓遠 金師鎮 朴基馥 李璋燦 申錫麟 朴光天 金鎮奎 金河運 李元模 郭祉錫 徐炳奎 李以挺 金漢坤 韓公翼 崔錫洪 權圻 金觀教 權奎東 成斗魯 鄭升燁 姜斗煥 李奎文 別檢孫相駟 鄭瑄 金延 鄭斗永 孫承虎 李鼎和 李致壘 李能百 申在泰 鄭直弼 曹文敬 李元龍 河敬舜 金璩 陳永來 金翰周 權璋(以上 86名)

直日：幼學鄭昌德 姜胃永 權宅夏 金宗泰 李彙寅 柳進璜 金道在 鄭裕觀 金明壽 金輝大 洪壁 金樂泓 鄭龜洛 李瓚 李能玄 柳道明 正字李基東 李宗稷 李晚淑 成鍾震 金邁銖 李之在 金重七 李龍淵 李尚中 金寅教 柳煥祚 李晚軾 李仁欽 金龍欽

(以上 30名)

그리고 이와 별도의 주요 任員은 다음과 같다.

陶山洞主：柳台佐

曹 司：金鎮滸, 李章儒 등

公 事 員：李五秀, 朴宗屋, 柳道宗, 權奎度, 李師延 등

製 通：金喆孚, 李殷淳 등

寫 通：金鎮河 權玉必 등

이상에서 重刊日記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 무수한 많은 文集 또는 기타 巨帙의 책들이 많이 발간되었는데 그때마다 退溪集과 같은 많은 人力과 物力이 동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日記의 내용을 볼 때 그 어려움과 出板의 과정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退溪集은 退溪가 뒷날의 嶺南의 儒林사에서 차지했던 비중으로 보아 全道的인 협조를 얻고 文集重刊이 이루어졌음도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의 重刊의 경우도 이로 미루어 推定해 봄직도 하겠다.